

“나는 당신같이 내 약 못 믿는 사람에게는 약 안 팔아!”



박태선
전북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당뇨교육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면 빼놓지 않고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누에 먹으면 어떻습니까?”, “감식초는요?” 하고 끊임 줄 모르는것이 민간요법에 관한 질문들이다.

지난해 신문 및 방송 등의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던 영향때문인지 유난히도 누에에 대한 질문이 많다.

이로 인한 중국에서 병든 누에 수입사건과 이로 인한 부작용, 농협에서 당뇨약으로 주문생산은 물론 누에고치의 수매 실적을 전무하게 만든 한해를 보내고 금년도도 모든 잠사농가의 주수입원으로서 효자노릇(?)을 툭툭히 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씩씩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민간요법을 접하면서...

자기 몸에 자리잡은 병에 대해 고치지 못하고 관리만이 그 해결책이라는 의사의 말을 꼭 뒤집고,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일념인지 모르지만 “당뇨

에 00이 좋다더라” 라는 단 한마디에 식사요법, 운동요법은 물론 약물요법까지 순식간에 머리 속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고쳤구나, 내일부터는 다 먹어야지” 하는 만족감과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돌팔이들이 못 고치는 내 병을 내가 고쳤구나” 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신을 뒤돌아볼 사이 없이 해매고 다녀, 치료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합병증까지 먼저 불러들인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자. 다른 당뇨병 환자들이 수년에서 수 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당뇨병에 대한 기적의 명약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또 그 기적의 명약이 왜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다른 당뇨병 환자들은 그 신비의 방법을 해보지도 않고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죽어갔을까? 그 사람들이 나보다 똑똑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나보다 돈이 없어서일까?

아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당신이 기적

의 명요법, 신비의 명약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돈을 날려가면서까지 몸소 체험한 선배(?)들이다.

뿐만 아니라 당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고 악화시켰다는 것까지도 알고있다.

단지 당신이 그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방법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하고, 당뇨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경험 해본 일도 없는 문외한의 입을 통해서 전해들은 것 뿐이다.

민간요법의 소문은 왜 무성할까?

그렇다면 왜 그 방법으로 나왔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신문, 잡지나 텔레비전에 오르내리는 것일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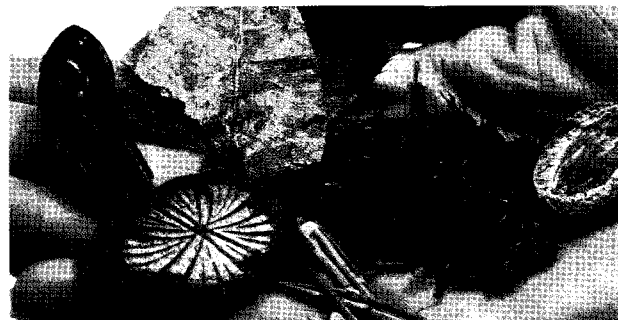
첫째로 과연 그 대상이 정말 확실한 당뇨병 환자였느냐는 것이다. 당뇨인 여러 분이 이미 알고있지만 정상과 당뇨병 중간에 해당하는 당내인성 장애군이 있다. 당내인성 장애군에 속하는 환자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당뇨병 환자로 취급해 치료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하지만 당내인성 장애군은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세 명중의 한 명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둘째로 언론 매체가 가지는 상업주의 내지는 한견주의 보도 태도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누에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기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한 건의 특종으로서 취급



하여 수많은 선량한 당뇨병 환자들을 오도하게 만드는 것이다(필자가 직접 누에 효과 발표 당사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동물 실험 단계이지만 특허를 따기 위해 먼저 발표를 했다 한다). 이로 인한 여러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도 하소연 하지 못하고 그저 속좁고 약삭빠른 자신만 탓하고 있다.

셋째로 기적의 명약 또는 신비의 요법으로 소개된 방법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는 이득을 얻는 순간 그 신비의 요법, 기적의 명약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새로운 효과가 덧붙여진 만병 통치약으로 둔갑하여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는 약 150여종의 민간요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여기에는 행위에 의한 민간요법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먹는 민간요법이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한 번쯤은 사용해 봤고, 당뇨병의 이환기간이 길수록,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잘 조절되지 않고 약물요법이 필요한 환자들일수록 더욱 더 선호하게 된다.

즉 귀찮고 힘드는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포기하고 싶은 때에 나타난 신비의 치료법에 넘어가지 않을 장사가 없으니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 그럴듯한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에 효과적인 방법인양 소개되고,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자기와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들이니 금상첨화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약은 오래 먹으면 탈이 많지만 민간요법은 오래해도 탈이 없다는 잘못된 믿음과 가령 부작용이 생겨도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이지 하는 너그러움(병원에서 조제한 약을 먹고 생긴 부작용이면 주먹다짐에다 떡살잡이까지 마다하지 않을 사람들이), 웬지 해보지 않으

면 유일한 방법을 앓고 마는 것 같은 조급함에다 막연한 기대감까지 가세를 하니 웬만한 줏대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견딜 재간이 없다.

그렇지만 그 요법

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것도 하나뿐인 자기 자신이고 그것을 먹고 소화해야 하는 것도 하나뿐인 자기 몸이다.

민간요법의 문제점

민간요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로 민간요법이 당뇨에 대한 혈당 강하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당상승을 일으키고, 효과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약물을 하나뿐인 자기 몸에 시험해보는 대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 홍삼은 당뇨에 좋은가요?”

“달걀비타민요?”

이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약을 사세요.”

“사서 드시되 각서를 한 장 받으세요. 만약 낫지 않으면 산 약값의 2배를 되돌려 주겠다는 각서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갈 것입니다.”

“나는 당신같이 내 약 못 믿는 사람에게는 약 안 팔아!”

